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결혼(結婚) 반지가 어디로 갔나?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제공(提供)해 준 사례(事例)이다. 어떤 남자(男子)가 아내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고 점(占)을 쳤는데, 반지를 빼놓고 운동(運動)을 하던 중(中) 한 여자(女子)가 와서 핸드폰을 반지 위에 눌러놓았고, 운동을 마친 후(後) 찾으려 하니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한테 물어보았으나,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계묘년(癸卯年) 신월(申月) 임술일(壬戌日) 정미시(丁未時) (순공(旬空): 자축(子丑)),

이위화(離爲火)가 산화비(山火賁)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庚申月 壬戌日 丁未時

八卦

離爲火(離火宮) 之 山火賁(艮土宮)

父丙寅 | 白兄己巳 | 世伏兄己巳
馬地 花劫乙亡 花劫乙亡

官丙子 || 蛇孫己未 || 伏孫己未
將馬災 帳天花鞍 帳天花鞍

應孫丙戌 || 勾財己酉 | 伏財己酉
帳馬月蓋 閏花害 閏花害

官己亥 | 朱官己亥 | 應伏官己亥
亡花劫 亡花劫 亡花劫

孫己丑 || 青孫己丑 || 伏孫己丑
帳花鞍喜天 帳花鞍喜天 帳花鞍喜天

世父己卯 | 玄父己卯 | 伏父己卯
害鬼乙花 害鬼乙花 害鬼乙花

六合卦 六沖卦

卦身: 兄巳

空亡: 子丑

世身: 六爻

뒤에 9월 2일(신월(申月) 계해일(癸亥日))에 찾아왔다. 경찰(警察)에 신고(申告)했으나 경찰이 관여(關與)하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뒤에 괘주(卦主)가 강경(強硬)한 태도(態度)를 보이며 폐쇄회로(CCTV) 화면(畫面)을 조사(調查)하여 찾아왔는데, 다른 회원(會員)이 가져간 것이었다.

이것은 처재(妻財)로써 용신(用神)을 삼는다. 처재가 월(月)이 방부(幫扶)하고 일(日)이 생(生)하여 왕상(旺相)하며, 회두생(回頭生)으로 동화(動化)하고 시(時)가 또 생하며, 축토(丑土)를 충(沖)하여 암동(暗動)으로 생하니, 이는 과왕(過旺)한 것이며, 과왕하여 응효(應爻)를

생하고 과왕에 무정(無情)이 더 해지니 길(吉)하게 되므로 찾을 수 있다.

응효는 타인(他人)이 되는데, 응효를 생하니 곧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다. 독발(獨發)이 일진(日辰)으로 화(化)하여 왕상으로 화하니, 과왕한 상황(狀況)이라 당일(當日)은 자연(自然)히 불리(不利)하다. 다음 날인 계해일은 응효가 치(值)한 바로 처재의 생을 받아 과왕을 상쇄(相殺)시키므로, 그 다음 날 찾아온 것이다.

부모(父母) 묘목(卯木)이 현무(玄武)를 임하고 독발에 충을 받아 암동을 일으켰고, 암동하여 형제(兄弟)를 생하니 유리(有利)하며, 이궁(離宮)은 문서(文書)와 전기(電氣)가 되고 부모는 데이터가 되며 현무는 환영(幻影)을 주(主)하므로 폐쇄회로 화면을 통(通)하여 찾아온다는 뜻이 있다.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婚戒哪里去了？（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给我的一个案例。某男占妻子的婚戒不见了，摘下后锻炼身体，一女过来把手机压在了戒指上，锻炼完后找不见了，找那个女的，说是没有拿，癸卯年申月壬戌日丁未时（旬空：子丑），得离为火之山火贲。

- 白虎 兄弟巳火'世
- 螣蛇 子孙未土"
- 勾陈 妻财酉金○ 子孙戌土
- 朱雀 官鬼亥水'应
- 青龙 子孙丑土"
- 玄武 父母卯木'

后于9月2日（申月癸亥日）找回来了。报警后，警察不想管，后卦主态度强硬，调监控，找回来了，是另外一个会员拿走了。

此以妻财为用神。妻财月帮扶，日生为旺相，动化回头生，时又生，冲丑土暗动生，此为过旺，而过旺生应爻，过旺加无情，为吉，故可以找回。

应爻为他人，生应爻，就是别人拿走了。独发化日辰为化旺相，过旺的情况，当日自然不利。次日癸亥，应爻所值，受妻财生，抵消过旺，故第二天找回。

父母卯木临玄武被独发冲，引起暗动，暗动生兄弟有利，离宫为文书、电、父母为数据，玄武主幻影，故有通过监控找回的意思。



Qeelin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귀곡자(鬼谷子): 천하(天下)의 기국(棋局)

제36장 귀곡(鬼谷)의 마지막 객(客)

소진(蘇秦)이 연국(燕國)을 떠난 후(後), 곧장 남행(南行)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정처(定處) 없이 걸었을 뿐이다. 꼬박 한 달을 걸었을 때, 그는 문득 자신(自身)이 운몽산(雲夢山) 아래에 서 있음을 발견(發見)했다.

산(山)은 여전(如前)히 그 산이었고, 나무도 여전히 그 나무였으며, 시냇물도 여전히 그 시냇물이었다.

그는 기억(記憶) 속의 오솔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기어올랐다.

산중턱까지 기어올랐을 때, 그는 멍해졌다.

동굴(洞窟) 입구(入口)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환원(環淵) 선생(先生)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친 포의(布衣)를 입은 한 젊은이가 청석(靑石)에 앉아, 한 권(卷)의 죽간(竹簡)을 받쳐 들고 읽는 중(中)이었다.

그 사람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진이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당신은..... 귀곡의 제자(弟子)입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셈입니다. 두 분 선생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어, 이곳에서 글을 읽게 하셨습니다.”

소진이 잠시(暫時) 침묵(沉默)하다가 물었다. “두 분 선생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젊은이가 동굴 안을 가리켰다. “안에 계십니다.”

소진이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왕후(王詡)와 환원이 마침 그 석상(石床)가에 앉아, 서로 마주 보며 말이 없는 것을 보았다.

“스승님, 환원 선생.”

두 사람이 고개를 들고 그를 보더니, 모두 한 차례(次例) 멍해졌다.

환원이 몸을 일으켜 그의 앞으로 걸어와, 위아래로 한 번 뜯어보았다.

“수척해졌구나. 늙었어.”

소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세 번 절을 올렸다.

환원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탄식(歎息)을 토했다.

“밖의 일은 우리도 모두 들었다. 소진아, 네가 수고가 많았다.”

소진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생(小生)이 무능(無能)하여, 스승님과 선생의 가르침을 저버렸습니다.”

왕후가 문득 입을 열었다.

“소진아, 이리 오너라.”

소진이 걸어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왕후가 그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깊고 그윽했다.

“너는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소진이 멍해졌다.

왕후가 말했다. “너는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다.”

소진이 입을 벌려 무어라 말하려 했으나, 끝내 말하지 못했다.

왕후가 계속(繼續)해서 말했다. “너는 합종(合縱)이 다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육국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六國)이 마음을 가지런히 할 줄로 여겼다. 너는 네가 성의(誠意)를 보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도 너에게 성의를 보일 줄로 여겼다. 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 줄로 여겼다.”

그가 말을 잠시 멈추더니, 탄식을 내쉬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꾸어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셈(算計)하여 얻는 것이다.”

소진이 침묵했다. 왕후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微笑)를 지었다.

“틀림없이,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소진이 고개를 들었다.

왕후가 말했다. “네가 한 일은 옳다. 다만 이 천하(天下)가, 네 옳음에 걸맞지 않을 뿐이다.”

소진의 눈물(眼淚)이 마침내 떨어졌다.

그는 귀곡에 사흘을 머물렀다.

사흘 동안, 그는 두 분 선생을 모시고 햇별을 쬐며, 그들이 요 몇 년간(年間) 산속에서 지낸 일들을 들었다. 그 젊은이는 이름이 범저(范雎)인데, 환원이 산 아래서 주워 온 이로, 매우 총명(聰明)하여 마침 《음부경(陰符經)》을 읽는 중이었다.

사흘 후(後), 그가 하산(下山)을 고(告)했다.

왕후가 그를 동굴 입구까지 배웅했다.

“스승님, 소생이 이 다음에도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왕후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귀곡의 문(門)은 언제나 열려 있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멀리 걸어간 후, 그는 뒤(後)를 돌아 한 번 바라보았다.

스승님이 아직 동굴 입구에 서서, 그가 가는 방향(方向)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夕陽)이 서쪽으로 지며, 그의 그림자를 아주 길고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문득 아주 여러 해 전, 자신과 장의(張儀)가 하산하던 그날, 스승님이 역시 이렇게 동굴 입구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들은 젊고 기세(氣盛)가 당당(堂堂)하여, 천하가 모두 자신들의 것인 줄로 여겼다.

지금(只今),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천하는 본래(本來) 그 누구의 것도 아님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바둑판 위에서 자신의 한 차례 힘을 다할 뿐이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第三十六章 鬼谷的最后一位客人

苏秦离开燕国后，一路南行。

他不知道要去哪里，只是漫无目的地走着。走了整整一个月，他忽然发现自己站在了云梦山下。

山还是那座山，树还是那些树，溪水还是那条溪水。

他沿着记忆中的小路，一步一步往上爬。

爬到半山腰，他愣住了。

洞口，坐着一个人。

不是环渊先生，是另一个人——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一个穿着粗布衣裳的年轻人，正坐在青石上，捧着一卷竹筒在读。

那人听见脚步声，抬起头来。

“你找谁？”

苏秦看着他，忽然问：“你是……鬼谷的弟子？”

年轻人点了点头，又摇了摇头。

“算是吧。两位先生收留我，让我在这儿读书。”

苏秦沉默了一会儿，问：“两位先生呢？”

年轻人指了指洞里：“在里头。”

苏秦走进洞中，看见王诩和环渊正坐在那张石床边，相对无言。

“师父，环渊先生。”

两人抬起头，看见他，都是一愣。

环渊站起身，走到他面前，上下打量了一番。

“瘦了。老了。”

苏秦苦笑，跪下来，磕了三个头。

环渊扶他起来，叹了口气。

“外面的事，我们都听说了。苏秦，你辛苦了。”

苏秦摇了摇头。

“学生无能，辜负了师父和先生的教诲。”

王诩忽然开口。

“苏秦，你过来。”

苏秦走过去，在他面前跪坐。

王诩看着他，目光深邃。

“你知道，你错在哪儿吗？”

苏秦愣住了。

王诩说：“你错在太相信人。”

苏秦张了张嘴，想说什么，却说不出。

王诩继续说：“你以为，只要合纵成了，六国就会齐心。你以为，只要有诚意，别人就会对你有诚意。你以为，人心是可以换人心的。”

他顿了顿，叹了口气。

“可人心，不是换来的。是算计来的。”

苏秦沉默了。

王诩看着他，忽然笑了。

“不过，你没做错。”

苏秦抬起头。

王诩说：“你做的事，是对的。只是这个天下，配不上你的对。”

苏秦的眼泪终于落了下来。

他在鬼谷住了三天。

三天里，他陪着两位先生晒太阳，听他们讲这些年山里的事。那个年轻人叫范雎，是环渊从山下捡来的，聪明得很，正在读《阴符经》。

三天后，他告辞下山。

王诩送他到洞口。

“师父，学生以后，还能来吗？”

王诩看着他，微微一笑。

“鬼谷的门，永远开着。”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苏秦点了点头，转身下山。
走出很远，他回头看了一眼。
师父还站在洞口，望着他的方向。
夕阳西下，把他的身影拉得很长很长。
他忽然想起很多年前，他和张仪下山那天，师父也是这样站在洞口，望着他们离去。
那时他们年轻气盛，以为天下都是他们的。
如今，他终于明白——
天下从来不是任何人的。
他们能做的，只是在这盘棋上，尽自己的一份力。
然后，输赢由天。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1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한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门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间(约1818

年)刊行的首部系统译介中国四柱推命的专著，以徐升《渊海子平》为底本，采用和刻线装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献，同时因作者非专精命理，存在翻译精度与体系适配的历史局限。

学术脉络：江户中期中国四柱推命传入日本，櫻田虎門结合自身儒易与五行学积累，完成首部系统译介，首次将“断易”命名为“五行易”，为后续日本推命学发展奠定术语基础。

历史意义：是日本推命学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连载之十一。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6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